

2024년
고3
3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독서 | 친족상속법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지문 분석

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(유언의 개념)라 할 수 있다.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(유증의 개념)을 유증이라 하는데,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. [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.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.]([] :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, **유증과 증여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(유증과 증여의 공통점)이지만, 유증은 단독 행위로,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(유증과 증여의 차이점)된다.

▶1문단: 유언의 개념과 유증과 증여의 차이

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(유언의 의사 표시 방식) 예를 들면(내용 전개 방식: 예시, **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,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,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(유언의 의사 표시 방식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)가 있기 때문이다. 이와 달리(내용 전개 방식: 대조)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.(유언과 계약의 의사 표시 방식의 차이, **유언과 계약의 의사 표시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▶2문단: 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유언의 의사 표시

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.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.(민법이 보장하는 유언의 자유) 혹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(민법이 보장하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)가 된다.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(유언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①)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(유언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②)은 허용되지 않는다. 다만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.(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음. **글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▶3문단: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

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. 포괄적 승계로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(포괄적 승계의 개념, **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이에 관한 내용 이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된다.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(법률 행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속)가 있다.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,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.(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조건) [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, 제2 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. 배우자는 제1 순위자와도 제2 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.]([] :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자격의 순위) [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,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%를 얹어 준다. 예를 들어(내용 전개 방식: 예시, **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,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.5 : 1 : 1이다.]([] :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분 비율과 그 예시, **<보기>를 제시한 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비율에 맞게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▶4문단: 사망 시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법적 행위인 상속

유증은 **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**(특정 유증의 개념)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. 포괄 유증은 **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**(포괄 유증의 개념)이다.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. **이에 비해**(내용 전개 방식: 비교·대조, **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을 비교·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[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,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.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.]([]: 특정 유증에서 상속인이 유증을 받는 절차)

▶5문단: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

[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.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, 시설 등도 될 수 있다. 즉,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.]([]: 유증을 받는 수증자의 범위, **수증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 따라서 **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**(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. **글의 정보를 이용하여 3문단의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**)도 있다.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**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**(유류분 제도의 개념)한다.

▶6문단: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한 유증

지문 확인

■ 주제: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 및 차이점

■ 각 단락 중심 내용

1문단: 유언의 개념과 유증과 증여의 차이

- 유언의 개념: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
- 유증: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
-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: 유증은 단독 행위, 증여는 계약임.

2문단: 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유언의 의사 표시

- 유언의 의사 표시: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.
- 유언과 계약의 차이점: 유언은 법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.

3문단: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

- 민법이 보장하는 유언의 자유: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음.
- 법정 상속이 이외의 상속인 지정이나 상속분과 관련된 유언은 허용되지 않음.

4문단: 사망 시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법적 행위인 상속